

오컬 히스토리

일본 미야기현 안중근기념비 건립과 한일민간교류 35년

사이토 다이켄(齋藤泰彦) 다이린지(大林寺) 주지

진행: 이인자(도호쿠대학대학원 교육학연구과 준교수)

일본공간에서는 한일 관계에 있어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술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호에는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반환된 것을 기념해 세워진 '안중근 기념비'의 소재지·일본 미야기현(宮城県)의 다이린지(大林寺) 사이토 다이켄 주지스님을 인터뷰했다.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을 보냈던 뤼순 형무소의 간수였던 지바 도시치(千葉十七) 씨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던 유목을 반환하고 안중근 기념비를 건립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사이토(齋藤) 주지스님은 반환 당시 아사히신문 기자로 활동하였다.

일본공간에서는 한일 양국의 관계가 지금 보다 녹록하지 않았을 35년 전부터 일본 내에서는 영웅적인 정치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한국인 독립운동가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뜻을 기리면서 매년 추도식을 드린 사이토 주지스님의 구술을 통해 민간 차원 교류의 중요성과 또한 그 어려움을 되짚어보려 한다. 한일 관계에 심각한 그늘이 드리워진 이 시대에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질의자로는 이인자 일본 도호쿠대학(東北大學) 준교수가 진행을 담당했고, 사이토 주지스님과 20여 년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동북문화학원대학 문경철 교수가 동참하여 사진 촬영 등을 도왔다.



유묵 반환의 배경에는 많은 동료들의 협조가 있었다

이인자(이하 ‘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스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기까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먼저 어떻게 성장하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사이토 다이켄(이하 ‘사이토’) 중학교 시절까지는 여기서 생활하며, 센다이(仙台) 제1고등학교를 나와, 도호쿠대학(東北大学) 문학부에서 프랑스 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 질 관련 문제로 인해 고마자와대학(駒沢大学) 대학원에 들어가고 난 뒤, 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에 입사했습니다.

이 아사히신문에서 근무하셨을 때, 안중근 의사의 유묵에 대해 유족으로부터의 상담이 있으셨으리라 봅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아직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으리라 여겨지는데,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사이토 『내 마음의 안중근』에 적은대로, 유묵을 반환한 1979년인 쇼와 54년이란 해는 안중근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었습니다. 유묵은 다이린지의 단카(檀家-장례나 제사 등을 관리해주는 제도) 집안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원래 아버지에게 먼저 상담하셨습시다만 아버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기 때문에, 그 일이 저에게로 온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사히신문의 동료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후 “안중근 선생은 한국에서는 현대의 영웅이라 여겨지는 분이다. 그 분의 글이라면 문화재일 텐데,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묵을 반환한 1979년 12월에는 동경에 남아있던 열두 명 정도의 유

죽도 함께 한국으로 돌아갔었는데, 눈물바다가 되었었죠.

유목 반환 교섭이 한창이던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했는데, 그 날이 때마침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암살된 10월 26일이었기 때문에, 인연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반환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이 사태를 1주일 내에 종식시켰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섭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환할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 반환 후에 모두가 섭섭함을 느끼며 “왜 반환한 것인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바 가문이나 아사히신문의 관계자 전원이 이야기를 나눠, 반환 배경 일화를 기념으로 남기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일본 국내의 문학자, 지식인, 정치가 100명을 대상으로 앙케트를 실시했는데, 대다수가 기념비를 건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잡지나 문서와 같은 안도 있었었습니다만, 화재라도 나면 불타 없어져 버릴 우려가 있다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기념비는 백년 넘게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쪽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지요.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176만 엔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사람당 3,000엔씩 기부하면 간단히 모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된 것처럼, 도쿄에서는 아직 안중근 선생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으며,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람의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120% 반대였습니다. “이 좋은 경내에 왜 그런 것을 세우느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중근 선생에 대해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10년 정도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안중근 선생을 소개하면 우익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경찰이 순찰을 돌며 호위를 붙여줄 때도 있었죠.

이 그런 일은 일반적으로는 있을 리 없는 큰일이지 않나요. 한창 한류

봄이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정치적으로 한일관계가 좋지 않기에 그 같은 고충을 다시 겪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 어제 열린 국회에서 진행된 다이린지를 안내하는 도로표지판에 관한 질의로 인해 다시 한 번 주목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떠신지요.

사이트 그 도로표지판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시기에, 당시 미야기현 부지사였던 마츠키(松木)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구 와카야나기마치(若柳町) 관광협회의 지도에 따라 현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는 상당수의 관광객이 다이린지에 왔었기 때문에, 월드컵이 실시되면 여기에도 분명 한국인 관광객이 오리라는 생각이 있었 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스가(菅) 관방장관이 작년 봄에 “안중근 선생은 범죄자다”라고 발언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얼빈에 안중근 선생의 비가 생겨 화제가 되었을 시기의 이야기이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해에 발생한 것이 구 와카야나기마치의 촌장의 일이었습니다. 그 분의 자제는 통산성 과장, 내각부를 역임하고 차대 사무차관이 될 것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안중근 선생의 일을 정식으로 답변하기 위해, 수상과 관방장관에게 알리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자료가 당장 필요 하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반환기사와 기념비문, 그리고 가호쿠 신보(河北新報)의 지바 도시치 기사를 전해주며, 주의할 점으로 “안중근 선생은 일본 초대 수상, 이토 히로부미 공을 하얼빈에서 암살한 한 한국인 청년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 없다”고 전했습니다. 후에 수상은 나의 생각대로 “안중근 선생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한국인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경찰이 기뻐하며 “스님이 지시하신대로 되었네요.”라고 하며 여기에 왔기에(웃음), 실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 일본정부는 한일관계에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환 전으로 돌리고자 합니다만, 반환에 관계하신 분은 그 외에 어떤 분이 계신지요?

사이트 유족으로부터 처음 이야기를 부탁받은 사람은 최서면 씨입니다. 그는 유명한 안중근 연구가로, 도쿄 미나토구에서 한국연구원을 하고 계실 때였죠. 그는 신문사에서 감시당할 정도의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최서면 씨의 은밀한 취재로 인해 안중근 선생의 유묵이 미야기현 구리하라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TBS(일본의 방송국) 창립 프로듀서와 교섭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프로듀서의 지인인 문화평론가가 제 여동생의 남편입니다만, 이 세 명이 유묵 문제를 깊이 조사해 최종적으로는 프로듀서와 최서면 씨가 교섭을 한 듯합니다. 그 후 저도 참가하여 교섭 창구 역할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또 여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최 씨는 지바 도시치 씨의 친척과도 많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친척에게는 비밀로 저희들과 교섭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척이라는 것은 지바 도시치 씨의 아내의 여동생의 자제로, 지바 도시치 씨의 조카가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서를 반환할 마음이라곤 털끝만큼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안중근 선생의 유묵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슈인대학(学習院大学)의 학장도 역임한 동대 교수가 가지고 있는 유묵도 양도받아 그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려줘도 좋지 않습니까?”라고 물으면,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경위는 모른 채, 교섭하고 반환하고 아사히신문에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게재한 그 날 밤 제가 내근으로 한창 편집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와서는 40분이나 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신문사에서 40분이라는 것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10분, 15분의 승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하들 원고를 체크하느라 바쁘니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하니 “어떤 것도 당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



야기에 대해 나중에 죄송하다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동문 초등학교의 선배님이기도 하지만, 종전 후 대용교원으로 한 달 정도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웃음).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죠. 더욱이 저희 집안 단카 가문이기도 해서 그 후에도 몇 번 뵈었죠. 그런 일도 있고 해서 반환 교섭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로 한국회사들도 긴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사히그룹도 지국이 추방되었었죠. 더욱이 신문사에 대사관 서기관이 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생운동도 일어나는 중이라 AP 등의 외신을 중심으로 기사가 작성되었습니다만, 데모 도중 부상자가 나오면 옛날 신문은 3단 정도의 표제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관리하고 있으면, 편성국에서 대기하던 서기관이 담당자를 불러 “큰일 만들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AP같은 외신도 잘 읽었고, 그 쪽에 전화도 했습니다만 이진 사실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렇지만, 그건 5, 6명 정도의 대수롭지 않은 부상이니, 자투리 1단 기사가 나리라 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건성이 커서 3단으로 표제 기사

한 건 쓴 것으로도 박 정권이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으니 “부탁한다, 부탁해”라며 저에게 요청하러 오던 시대였습니다.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요.

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도 쉽사리 교류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사이트 반환하기 1년 전인가 그 전전년인가였을 겁니다. 그때부터 일본에서도 미시마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같은, 제가 일하고 있을 때는 큰 사건이 꽤나 있었죠.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총리의 체포 보도는 제 담당이었습니다. 반환하고자 했던 때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었죠. 아까 말한 TBS의 프로듀서는 TBS를 퇴사하고, TBS 옆에 사무소를 두고 별도의 문화사업 일을 하면서, 한일협력위원회의 소장이 중심이 되어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처남도 협력하여 최서면 씨가 말하는 대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있었기에 유물을 반환하도록 저도 애썼던 것입니다.

이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반환으로 시작된 시민 레벨의 교류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이트 시민 레벨의 교섭 이야기 전에, 일본 역사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반성이 없는 채로 지금에 이른 배경에 대한 것입니다만, 전후는 어찌되었든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GHQ의 맥아더의 지시에 따라 1945년부터 6.25전쟁까지의 5년간은 정말로 겨우 겨우 연명하며 재건을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6.25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역사인식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 그건 미국의 책임입니다. 미국이 6.25전쟁에서 공산주의를 섬멸하기 위해 일본이 협력하게 하기 위해 경찰예비대를 만든

것입니다. 요시다 시게루(일본의 정치가, 총리대신 역임)는 거기에 반대했습니다. 그게 6.25전쟁이 일어난 바로 직후의 일입니다. 6.25전쟁 시기 일본은 군사산업에 의한 특수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의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군사산업이 소생했기 때문에 일본이 경제가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알맞은 일이기도 하죠.

저는 1946년에 경제발전의 근간이 된 신헌법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신헌법은 1947년에 공포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지요. 저는 그 헌법을 읽고 “훌륭한 문장이다. 이렇게 하면 전쟁이 없어질 거야”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던 해에는 ‘귀축영미’라는 문구를 외치며 창 연습을 했습니다. 아침, 등교할 때도 미국의 대통령이나 영국 수상의 얼굴을 붙인 허수아비를 걷어차며 걷곤 했었죠. 그런 시기가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은 지고난 후, “정말 우매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천황제에 반대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중학교 2학년 때 쇼와 천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대표로 불러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천황이 눈앞을 지날 때 모두가 머리를 숙였죠. 하지만 저는 신기한 일인지라 힐끔 봤었습니다(웃음).

결국, 군비 반대를 주장하던 당시의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도 일본공산당도 강하긴 했지만 레드 퍼지는 정말 강했던 것입니다. 1950년은 중학생이었지만, 그런 제제도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1950년부터 3년간의 6.25전쟁 시기에 일본의 군비산업은 미국의 요청으로 무기를 점점 생산해냈습니다.

이 일본의 패전에 관해 충실히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좋지 못했다는 것이군요. 황폐한 벌판에서 기적의 부흥을 일궈냈다며 기뻐한 사람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그게 좋지 않았다고 평가하시는 점이 뜻 깊습니다. 저는 현재 동일본지진의 피해지역을 조사 연구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이 생각할 겨를도 없는 채로 부흥계획이 진행되어 곤란에 빠졌던 상황과 오버랩 됩니다.

안중근 선생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사이트 이 유물을 반환하기 전후로, 6.25의 빌미가 된 것이 중국의 모택동이 아닌, 스탈린이었다는 점을 와다 하루키 씨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스탈린의 서면이 전부 공표되어, 아사히신문과 도쿄대학이 공동으로 전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사히신문의 담당자가 최서면 씨의 신원 등을 전부 조사해, 항상 저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당시 신문사는 새벽 3시경에 전부 끝나기 때문에 3시 반 경에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 사이트 군, 그 사람은 너무 깊이 쫓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조심하는 게 좋아”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웃음).

그러니, 뭔가 개운치 못한 채로 유물을 반환하고, 그 1년 4개월 후인 1981년에 이 기념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때부터가 가혹한 10년.

모임이 있으면 우익과 같은 다양한 사람도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일본의 우익, 보수계, 자민당에서도 안중근 선생은 테러리스트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지금은 테러리스트의 정의가 또한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면 사건이 일어난 1909년이라는 해는 아직 병합 전으로, 일본의 형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형법으로 보면 암살사건은 무죄이거나, 최고형이라도 징역 3년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일본 외무성에서 재판을 담당하게 되면서,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기 때문이란 이유로 억지로 일본 형법을 적용시켰습니다. 더욱이 병합이 결정

되어있었기에, 제2, 제3의 안중근 선생이 나와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 따위는 하지 않고 처형을 서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분위기가 도중에 확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 그래서 관할권을 하얼빈에서 뤼순으로 무리하여 이행해, 일본 법정에서 재판받게 한 거군요.

사이트 더욱이 재판이 시작되고 110여 일간, 6회의 재판으로 사형이 결정되었습니다. 3회째정도까지는 일본 변호사도 옹호했지요. “이 범 죄는 일본 메이지 유신의 때라던가, 국가의 독립을 좌우하는 일로, 안중근 선생도 독립을 위해 실행한 것이다. 더욱이 그 장소가 하얼빈으로, 아직 일본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3년, 정확히 말하면 무죄여도 된다.”라는 방식으로요. 처음에는 그런 태평한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은 구라치 데즈키치(倉知鉄吉)라는 정무국장이 뤼순에 시찰을 와, 아무리 봐도 재판 결과가 가벼운 죄로 결정날 것 같다고 봤기 때문에 일본 외무성에 “이를 극형으로 다스려야한다”고 밀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검사의 질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법조계는 만국형법을 배워, 일본도 새로운 근대화 속에서 훌륭한 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불타올랐던 시기였습니다. 한창 그런 시기에 외무성 대신으로부터 사형 통달이 왔기 때문에, 고등재판소의 장관도 밀담으로, 검사의 심문 내용을 억지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큰일이었습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 그런 비화를 보면, 지바 도시치 씨는 간수로 와 있으면서,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졌다는 것을 빈번히 느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안중근 선생은 자서전이나 재판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매우 실망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형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병합 이전의 사건이기에 안중근 선생은 한국 법률로 재판받아야하며, 무죄였습니다. 악인도 무엇도 아닙니다. 그러나 병합 중이던

45년까지 36년간, 안중근 선생은 범죄자로 여겨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독립 후에는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법조계에서는 무죄론이 꽤나 언급되었으니까요.

하는 김에 한 마디 더 하자면, 한국의 병합, 식민지시대, 거기에는 그 위안부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것은 강제로 한국의 자유를 탈취하여 옹졸할 정도로 압박하고, 괴롭히고 괴롭혀 병합 조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침략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아마도 안중근 선생의 사건이 있었던 때가 일본의 제국주의가 가장 정점에 닿았던 시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에서도 말하고 있 듯이요. 그렇다면, 일본 외무성, 정부는 이 병합 조약을 파기해야하는, 독일식으로 말하자면 진실로 사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조약 그 자체는 양방의 합의 하에 체결된 합법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이 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고 하고 있음에도, 합법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서, 이 주장들이 병행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한일교류가 진전되는 사이에서 통용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역사의 증명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민간 교류에 힘쓰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안중근 의사에 관한 책을 출판하기까지의 공부

이 말씀하신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적 주장보다는 민간레벨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토 주지스님께서서는 79년에 유묵을

반환하시고 나서, 다양한 교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10년 정도는 정말 힘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80년대부터를 떠올리신다면, 어떤 변화나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사이트 교류에 대해 더듬어보자면, 시간 순으로 설명하면 말입니다, 1981년에 우선 기념비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90년까지의 10년간은 고통스런 반대투쟁 속에서 방해가 있었음에도 추도식을 거행했습니다. 한국총영사를 시작으로 한국의 요인들도 제1회 추도식부터 참가해주셨지요. 그 때문인지 제가 바란 것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경찰 측에서 호위를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게 1989년이 되면, 그 해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입니다만, 냉전구조가 붕괴되면서 저희 측을 향한 공격이 급속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8회 추도식부터는 공식적으로 추도식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해가 제가 책을 출간하게 된 1994년의 일입니다.

이 책을 출판할 때, 후쿠다 전 수상(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제 67대 총리대신)과 일한교류협회의 회장이 권두문을 써주셨습니다. 후쿠다 수상도 제 원고 전체를 읽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생각해보니 나도 일본 수상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초대 수상인 이토 공을 죽인 사람을 찬양하는 문장을 권두문으로 쓰면, 역시 훗날에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군.”이라며 갑작스럽게 다음날 아침 출판사의 허가를 받고 권두문을 생략하게 되었습니다(웃음). 그 후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번에는 생략하였습니다만, 속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중도에서 서술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안중근 선생과 지바 도시치 씨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애국심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조국을 생각하며, 서로의 마음을 교류했기에 결국에는 서로를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92년에 와세다 대학의 오쿠마 강당에서 토론회를 했을 적에는 우익과 대논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우

측의 학자는 제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었기에 제 생각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좌측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도 좌도 직접 대치하면 애국심을 건들 수밖에 없기에 알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책을 읽으면 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출판하고 1년도 되기 전에 기성 우익은 애국심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그룹에게 책을 백 권 정도 사서 보내드리고 싶었을 정도입니다.

이 책 출판의 원동력이 된 것은 안중근 의사와 지바 도시치 씨의 기념비를 주변에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군요. 한국과의 교류가 빈번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도식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는지요?

사이트 추도식은 기념비 낙성식 첫 회부터였기 때문에 올해로 35회째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동아일보 회장도 오셨었지요. 한국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관리하고 있는 안중근의사 송모회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멤버가 중심이 되어 참가하게 된 것이 1998년경으로, 책이 출판된 이후로 기억합니다. 89년 이후에는 총영사뿐만 아니라 신임 주일한국대사들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참가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이린지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영부인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1998년에 일본 수상경험자들의 부인들과 센다이를 방문하여, 제 책의 출판기념회를 열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습시다만 참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출판기념회에서 영부인은 첫 마디로 “이 미야기현은 저에게 연고가 깊은 땅입니다. 안중근 선생님의 성지가 미야기현 다이린지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 급속히 방문자가 증가했습니다.

안중근 선생의 동상을 보고 합장했더니 눈물이

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한국인이 이곳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만, 반대로 사이트 주지스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사이트 저는 유물을 반환하고 2~3년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한국의 남산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의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추념식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인을 포함해서 50여 명 정도 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추도를 거듭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이 일이 마음에 와 닿게 되었는데, 더욱이 그로부터 2~3년 후에 이르러서는 안중근 선생의 동상을 보고 합장을 하니 눈물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나도 고생했구나. 힘든 처지를 겪어냈구나”라는 마음. 또 다른 하나는 “안중근 선생도 독립 투쟁 속에서 정말 고생하셨겠구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는 공부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차 책을 쓸 준비가 되어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한일 관계가 정치적으로 언급되는 일이 많은 요즘입니다만, 마음의 긴장감을 덜어주는 이야기시네요. 이 시대에 필요한 한일교류의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주지스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사이트 오사카에 있는 기자 동료로, 저처럼 한국에 대해서 조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만, 그와 “한일관계가 좀처럼 잘 되어가지 않는 것은 왜인

것 같은가"라고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3년 전 한국 교류회에서도 이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던 것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골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인식 공유와 상호이해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성으로서, 뭔가 변하지 않는 패턴이 아무리 노력해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는 조선을 침략한 이토를 죽인 안중근은 영웅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토를 대표로 한 일본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에게 있어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근대화의 공로자입니다. 저도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자료를 여럿 조사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3월 시대였습니다만, 1877부터 1878년에 걸쳐 그 3명 전원이 죽게 됩니다. 거기서, 그 뒤에서 잘 처신하며 때를 기다리던 것이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1873년경부터 일본 정치계에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서, 3명이 죽은 후부터는 금세 일본 근대정치계에서 두각을 나타내, 헌법 발포나 내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토의 존재는 꽤나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 한국에서도 일본의 신문이 번역되었기 때문에 안중근 선생도 그런 일본의 유신 내용은 빈번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식자들 중에서는 일본어를 구사하며, 일본 사정도 잘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민족은 병합에 이르기까지 점점 침공해 오던 이토를 가장 미워하고 있었기에, 그가 암살당했다는 일은 "잘된 일이야, 잘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민족에게는 "위대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즉, 이 구조는 역사인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역사 인식문제라는 것은 정치 베이스, 외무성이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권익이 초점이 되어 그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 수준에서도 보다 깊게 파고들어, 잘못된 골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노력을 보다 강화해가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저와 같은 이해방

식이 좀 앞서있는 것이기에, 이를 보다 널리 퍼뜨리는 것을 통해 골을 메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진실은 숨겨져 있더라도 최후에는 반드시 표면화합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감정을 뺀 역사의 객관적인 사실, 그로부터 민중끼리 깊게 교류하며 이해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진실은 아무리 숨기고자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사이트 주지스님의 오랜 활동 중에서, 이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는 한국인 동료는 있으신가요?

사이트 그건 동료 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념관을 중심으로 파생한 사람들 전원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분들이죠. 제가 살아있는 한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지바 씨는 좋은 나쁜든 계속 안중근 선생과 함께 한 5개월간의 시간 속에서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지 어떤 누구를 ‘좋은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 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인품이라고 해야 할지, 전부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한순간의 만남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의 일부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는 교류하지 만나지 않으니까요.

**30년 이상 교류했기에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망설임 있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 30년 이상 교류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변화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사이트 한일 교류에 있어서 진보되었다고 생각되는 면은 과거에 한국인 과 이야기할 경우에는 좀 더 신중히 행동하며 한 발 물러서 예의를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류가 진척되었고 서로가 20년 이상의 만남이 되다 보니 젊은 사람들도 모두 중년이 되었습니다. 저부터도 틀리면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다른 이들도 “그건 스님이 이상한거야”라고 서로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만 교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2,3년 정도 사귀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정중하게 말합니다. 교류가 길었던 사람들과는 서로 자유롭게 인사한다거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교류를 오랫동안 유지해나가면서 점점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감입니다. 서로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사이트 저는 7,8년 전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다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묘지를 안내하거나 설명할 기회도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사이에 드물게도 한국 로터리 클럽의 분이 방문하셔서,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 수준이 정말 높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배도 제대로 하시고, 시주도 많이 하고 가셨어요. 시주가 많으니까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거기다 일반적으로 관광하러 오신 한국인들은 본당에 오르실 때, 모자를 쓰거나 구두를 신은 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같은 태도가 일본보다 더 안 좋게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럴 때 저는 화가 납니다.

이 그렇군요. 예의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침묵하며 외면해버리는 것보다 훨씬 애정이 느껴집니다. 분명히 귀찮은 일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이트 정치가가 도쿄에서 역사 인식에 대해서 점점 발언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선두로 목소리를 냈더니, 점점 일본에 적이 많아졌습니다. 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담회라는 것은 편하더군요. 파티를 열던 무엇을 하던 그 쪽으로 비판은 하지 않습니다. 우익은 이곳을 노리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의연하게 다이린지다운 다이린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매년 9월에 실시하는 교류회는 항상 힘듭니다.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사실 하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 비를 안중근 의사의 기념비로서 보러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는 안중근 선생뿐만 아니라, 안중근 선생과 지바 씨의 마음에 담긴 보편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비문을 쓸 때 최서면 씨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양 측 모두를 비난하지 않고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앞부분에 서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담회 쪽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안중근 선생님과 지바 씨의 진정한 교류를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매년 9월에 실시하는 교류회 때 한국관련 인사들은 이곳 외에 또 다른 절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고 들어 의아해 했습니다. 사이트 주지스님의 뜻과 조금 다른 취지로 기념비와 추모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사이트 그쪽은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11차례나 강연을 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피를 가진 사람들이 10여 년 전에 지바 씨와 안중근 선생을 맹우로 설정하고, 전혀 관계없는 절 경내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안중근 선생님과 지바 씨는 맹우가 아닙니다. 지바 씨는 안중근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념비문을 쓸 때 저에게 보여 주지도 않았습니다. 보여준 것은 다 만들어진 이후였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때부터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응원하는 것이 총영사관이며, 안중근 의사 기념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 그룹이지요. 저는 그 교류회에서 표창도 받았기 때문에, 사담회 대표에게 5년 정도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이전에 교류회를 하던 시절에는 여기에서 투숙하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역시 호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류방법도 딱히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점은 교류의 기술적인 방법의 문제이기에 주의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이 왜 그런 식으로 방향성이 바뀌어 버린 걸까요?

사이트 제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행해진 일이긴 합니다만, 이해 방법이 너무나도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우선의 목적이 관광 진흥책으로 정치적인 일이란 겁니다. 그래서 안 되지요.

이 이익 유도형으로 가고 있던 말인가요?

사이트 구리하라 시의 국제 교류 협회와 합심하여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보다 일본 민중에게 정확히 본질적인 부분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 송모회에서 창립 시 신세를 졌던 분이 특정 종교 단체와 공모하여 다른 방법으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거나, 추모원을 설립하려

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나는 주의를 쫓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무리 당신이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왜 특정 종교 단체와 공모하려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박 대통령도 협력하여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일부러 그 장소에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곳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고생을 참을 수 있고, 진정으로 지적인 모임 중에서 모체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습니다. 작년인가 제작년에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서 그에게 “그립네요”라고 말했었죠. 그는 “뒤돌아보니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며, 안중근 의사 기념관의 경영에 대해서 몇 마디 하였지만, 그 때 저는 나는 “그래도, 이미 지난 일입니다.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해주었었죠.

이 지금의 이야기를 듣고 기념비를 건립한 이래로 30여 년간, 우여곡절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시간을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일 간에 존재하는 골, 골을 메우기 위해서는 조류를 잘 읽어낼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

이 한일교류에서 볼 수 있는 골이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이 골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할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이트 현재 일본의 조류를 내다보며,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나쁘다’라는 점만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



다고 봅니다. 일본 전체를 당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관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침략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한국의 자유를 빼앗아가면서까지 병합을 강요한 부분까지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병합 조약에 관해서는 현재에 이르러서도 합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진정으로 안중근 선생님의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교류를 좀 더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어느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사과를 했었는데, 그것이 일본에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전후 신헌법이 만들어지고, 교육의 장에서 좀 더 일본의 역사에 대해 공부할 시간도 없이 6.25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6.25전쟁 특수로 인해 교육할 경황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는 역사 인식이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일본은 전후, 말하자면 반성기로서, 국민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전쟁은 대체 무엇이였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였음에도 불

구하고 6.25전쟁이 일어나 반성보다는 경제 쪽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일단 사실에 대해 알거나, 서로가 각각의 입장에만 부합하는 식견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가 골을 메울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와 지바 씨를 기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으리라 봅니다. 요컨대 두 분을 본받아, 정치적인 국제 정세의 바람에 나부끼지 않고, 상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경하며, 가능한 한 서로를 인정하고 교류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일본인인 주지 스님께서 경내의 제일 좋은 곳에 기념비를 건립하고 오늘까지 이를 지키고 계시는 행위도 그 같은 뜻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골도 조금씩이긴 하지만 메워지리라 봅니다.

사이트 역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30여 년 동안 하고 있으니, 어느 쪽이든 세대가 바뀌고 있으므로, 거기에 맞춰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이 방금 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골을 메운 사람이 안중근 선생님과 지바 도시치 씨입니다. 지바 씨는 당연히 일본인이기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점에 대해서는 역시 미움도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안중근 선생님을 이해하고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였죠. 그 정신이 지금의 민간 교류를 잇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트 그렇습니다. 즉, 보편적인 인간의 인정이란 것은 민족을 초월합니다. 서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서로 이해해 나가는 것.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는 그것을 모토로 삼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다.

이 오늘은 몇 번이고 다시 여쭙보며 가르침 받고 싶어지는 과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기념비를 세우시고, 힘든 어려움도 정말 많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35년 동안 계속 이어져온 원동력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다양한 지혜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들이 좀 더 공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日本空闊)